

광주시민이 뽑은 최우선 추진사업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 발표

미래전략산업 육성·에너지 신산업도 핵심사업



광주시민들은 광주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를 꼽았다.

시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표본 4905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이 31.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공지능·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27.6%),

'에너지 신산업 등 특화산업육성' (14.1%),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관광 명소화' (9.9%) 순이었다.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61%)에 과반수가 넘게 응답했고, '한전을 활용한 에너지밸리 조성' (13.4%)이 뒤를 이었다.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49%), '에너지 및 수소산업' (14.1%),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 (10.9%),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10.3%) 순이었다.

광주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불법주정차,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인 안전부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19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고 8일 밝혔다.

119단속반은 시 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 등 10개 반 32명으로

편성해 연중 불시 단속하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시 소방본부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치단행위 등 4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

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난해 성과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50.4%)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25.5%)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13.5%)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분야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환경분야(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보통' (45.6%), '좋음(만족)' (30.7%)으로 답했다.

복지분야에서 앞으로 끌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 (22.8%), '공원·녹지산책로' (18.8%), '보건 의료 시설' (14.6%), '사회 복지 시설' (11.6%) 순으로 나타났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분야별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달해 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실시하는 사회조사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을 조사해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노동, 광주시 특성조사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에는 가족,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등 7개 부문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전원을 치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도 단속한다.

특히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

시가 있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전남도청~나주 혁신도시간 새 도로 오늘 오후 6시 개통

2025년 투입해 10년 만에 완공... "사고위험 감소"



총 2025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11월 착공, 10년 만에 개통한다. 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해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번에 새 도로가 개통되면 4차로 확장 및 직선화로 전남도청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 고속도로 이용과 비교해 거리 27km(68km→41km), 시간 18분(53분→35분)이 단축되고 통행료 2900원(편도)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여기에 2022년 한전공대 개교, 2023년 광주송정역에서 나주를 거쳐 무안국제공항·목포역까지 운행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나주 에너지산업·한전공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목포·무안권과 나주 혁신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무안 일로~몽탄~동강 구간 국지도 49호선 전구간이 완공돼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은 무안 일로읍에서 나주 동강면 까지 총연장 14.5km를 2개 구구(일로~몽탄 8.5km, 몽탄~동강 6.0km) 다.

국비 1663억 원, 도비 362억 원 등

'미향 광주' 최고 맛집은... 市, '베스트 67' 선정

소비자 취향 고려... 개미맛집 등 5개 테마별 지정

광주시는 '미향 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의 음식명소 67곳을 광주맛집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8기 광주맛집(2020년~2021년)은 다양한 세대별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5개 테마로 나눠 음식의 맛과 멋, 서비스 수준, 위생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광주주먹밥 전시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맘스쿡 등 광주주먹밥 3곳과 광주 별미분식의 대명사인 광주상추튀김 3곳, 광주(계절)한정식 11곳,

광주육전 2곳 등 19곳을 광주대표 음식맛집으로 선정했다.

또 광주유동오리탕, 무등산보리밥, 송정리향토떡갈비 등 광주대표 음식점이 모여 있는 거리를 '맛집거리'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백년가계로 선정한 민들레(계장, 굴비정식)와 제4회 남도 전통시장 푸드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서울장수 국수를 포함해 총 12곳을 개미맛집, 광가 등 14곳을 건강맛집, 마한지 등 14곳을 나들이맛집, 알랭 등 8곳을 청춘맛집으로 각각 선정했다.

시는 '제8기 광주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맛집 지정



광주 대표 별미 중 하나인 '상추튀김'.

파 부착과 함께 입식테이블 교체비와 조리장 등 시설개선 시 식품 진흥기금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향후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파워블로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광고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맛집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디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털파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만 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